

## 2011년 신묘년 가족예배

1.

사도신경

2.

찬송가 524 장 (313 장 )

3.

기도

4.

누가복음 19:1-10 기뻐할 수 있는 힘

다소 도발적인 책 제목인 “욕쟁이 예수”라는 책에서 영국의 기독교 축제인 그린벨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. 저자는 공항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 그 축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, 할머니는 한마디로 “ It’s life change.!” 라고 표현했습니다 . 여기에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. 어떻게 축제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? 경건이나 예배 기도 등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. 하지만 그 축제에 직접 가보았을 때 정말 그 축제에서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.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모두 축제입니다 . 그것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. 제 3자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축제의 작은 순간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.

그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뭘 듯이 기뻐했고 ,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. 8 절 .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. 선교사 선발 요건 가운데 하나가 ‘유머’라고 합니다 . 목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웃어넘길 수 있는 유머 능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. 유머는 진정한 고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.

용납

상대를 용납해 주는 것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, 그 때부터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.

니다 . 반대로 거절당하면 거칠어집니다 .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.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정죄부터 하셨다면 그가 변화되었겠습니까 ?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. 반대로 그가 구원을 얻은 것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. 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. ” 축하해주는 멘트를 먼저 하셨습니다 .

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영성과는 다르잖아요 . 우리는 자꾸 거절하는 바리새인의 영성을 쉽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.

파국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. 용납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창조적인 눈도 열리게 됩니다 . 거짓말이 은사인 꼬마를 정죄하여 사기꾼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용납함으로 품어 줌으로써 거짓말의 은사를 작품 만드는데 쓰임 받게 한다면 그 아이는 해리포터와 같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. 기뻐하고 용납할 때 그 안에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.

## 희생

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 집에 거하실 때 , 바리새인이 비난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. 7 절 .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기뻐하고 용납하려면 ‘희생’이 필요합니다 . 희생 없이는 축제가 불가능합니다 . 모든 기쁨의 뿌리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.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.

에스라 서와 느헤미야 서의 구조는 같습니다 . 앞부분에는 느헤미야의 외적인 성전 건축을 , 뒷부분에는 에스라의 영적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.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, 비로소 잊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. 학개서를 보면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지쳐서 성전 재건이 십 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. 희생도 없고 , 헌금도 없고 , 편해졌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괴로움이 더했습니다 .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면 편해져야 되는데 , 성도들의 삶은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. 희생이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.

생명은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. 더 가치 있는 것에 드러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. 가지고 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사용되었을 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. 삶의 정의를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. 희생할 줄 알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.

상대의 장점을 즐길 수 있는 여유

예수님은 삭개오의 장점을 보고 즐거워하셨습니다 . 8 절 . 누가복음 15 장 돌아온 탕자에서 형에게는 함께 즐거워하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. 탈무드에 “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.”라는 말이 있습니다 . 백 가지의 칭찬을 듣고도 한 가지 욕설에 반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.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. 어떤 성도는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작은 문제에 매달려서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. 한 가지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고민하고 , 그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고민합니다 . 마태복음 6:30~31에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.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?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.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. 완벽한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. 완벽해지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원죄와 같은 죄입니다 . 있는 그대로 기쁨을 누릴 줄 알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떠나지 않을 것 입니다

용납과 희생 즐거움의 여유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.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.

5.

찬송가 64